



황금시장의 세라믹방수(防水) -들뜨거나 갈라지지 않는 숨쉬는 방수재-

대송그린텍 대표 조문제



전 설비분야 중에서 소재나 공법면에서 지금까지 완전하게 정복되지 못했던 분야가 바로 방수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테면 보일러, 배관, 미장, 타일, 하수관청소, 페인팅 등의 시공은 특별히 시공자의 부실시공이 아닌 한 대부분 시공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20여년 세월동안 유일하게 방수시공만은 잦은 하자로 말미암아 비만 오면 설비업자와 소비자가 갈등은 빚어온 것이다.

심지어 주 고객들로부터 방수시공 의뢰가 들어와도 오히려 기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골치거리의 방수공사가 황금시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1. 기존의 에폭시, 우레탄의 문제점

20여년동안 거의 에폭시나 우레탄(또는 미장방수)등이 방수시장을 지배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건물은 그리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주요원인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이들 소재들이 유성이거나 탄성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 옥상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가 태양열을 받으면서 팽창하고 그 내부압력(최고 10kg/cm²)을 견디지 못해 들뜨거나 갈라지는 현상(크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청소를 잘하고 프라이머를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2. 방수재의 필수요건

방수재의 기본원리는 너무 간단하다.

즉, 갈라지거나 들뜨지 않으면 일단은 만족스런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유성이 아닌 수용성으로서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되어 바닥면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뜨거운 태양열이나 산성비에 절대 변질되거나 부식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셋째,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육상의 콘크리트 내부에서 가열된 공기가 압력을 받기 전에 미세한 기공을 통해 빠져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콘크리트 내부가 항상 건조되어야 하며 철근의 부식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세라믹 방수재는 상기의 모든 조건을 100% 충족시키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소재로 평가되고 있다.

3. 설비업계의 대변화 예고

5~6년 전까지만 해도 설비업은 잘 되는 업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백화점식으로 벌리기만 하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정반대이다. 오히려 남이 시작하지 않는 유망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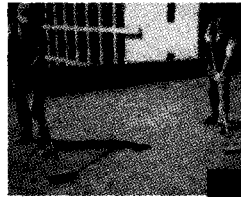
이제는 수년동안 누구나 하고 있는 분야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진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덤핑 현상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각 개인에게는 사고의 발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세라믹방수는 황금시장이다.

빌딩이나 아파트, 주택 등의 건물관리 측면에서 볼 때 방수분야만이 수십년동안 해결되고 못하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장규모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兆)단위까지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보일러설비협회나 한국난방시공협회 회원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세라믹방수재는 이미 3~4년전부터 사용해 본 대부분의 업체들은

세라믹방수재야말로 기존의 어떤 방수재와는 달리 확실하고 완벽한 방수재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수라는 아이템도 기존의 아이템 못지 않게 최소 15년 이상은 호황을 누리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양 협회 회원사들의 핵심 수입원이 되리라 확신한다.



세라믹방수재의 특징

1. 숨쉬는 방수재이다.
2. 침투방수재이다.
3. 신축성이 뛰어나다.
4. 산성비나 태양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그래서 절대 갈라지거나 들뜨지 않는다.
6.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좋다.

세라믹방수재 구성

1. 옥상방수
 - 1) 하도용 : 콘탑
 - 2) 상도용 : 세라콘
 - 3) 크랙집착제 : 크랙본드와 파우더
2. 외벽방수 - 고성능 발수제
3. 주차장바닥방수 - 플라스콘